

“2공항 활주로 원안 위치 가장 타당”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 공개·의견수렴
“소음피해 저감·절대보전지역 영향 최소화 필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전략 환경영향평가 결과, 예비타당성 안에서 제시된 활주로 위치가 가장 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신규활주로 건설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면서도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변지역 영향이 예상됨에 따라 저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홈페이지(www.molit.go.kr)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내용을 고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회의에서 국토부와 환경부,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제주도,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는 2017년 7월 착수한 이후 약 2년만에

도출된 것이다.

이번 평가는 ▷계획지구 및 주변 지역(지형 및 생태축 보전, 수환경의 보전 등) ▷계획지구~0.3km(철새도래지 등의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등) ▷계획지구~1km(조류 등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70웨를 이상인 지역(항공기소음 등 환경기준의 부합성) 등을 대상으로 검토됐다.

특히 협의회는 수단·방법 비교를 위해 활주로 신설 계획 중 활주로 위치, 환경부문에 대해 원안(예비 타당성 안)과 대안 1~5안으로 나눠 비교·검토했다.

대안별로 보면 예타 기준 ▷1안(북측으로 1km 이동, 서쪽으로 5도 회전) ▷2안(북측으로 2.2km 이동, 서쪽으로 6도 회전) ▷3안(북동측으로 400m 이동, 서쪽으로 5.5도 회전) ▷4안(북동측으로 700m 이동, 서쪽으로 8도 회전) ▷5안(서쪽으로 150m 이동, 동측으로 18도 회전) 등

을 말한다.

그 결과 예타에서 제시한 원안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원안은 하도리 철새도래지가 진입표면 내부에 위치해 있고,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지역 4만 2113㎡가 포함돼 있어 보전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 원안 지역은 70~75웨를 1360곳, 75~80웨를 541곳, 80~85웨를 30곳 등 총 1931곳이 소음피해가 우려돼 저감 방안이 주문되고 있다.

심의의원들은 ▷항공기 소음예측 결과에 맞춰 소음피해 평가대상 지역 확대 검토 ▷철새 서식과 이동경로 등 영향 검토 ▷조류와 항공기 충돌 등 안전성 문제 검토 ▷절대보전지역·지하수자원보전지구 영향 최소화하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오는 6월 4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견 접수는 팩스(044-201-5633)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받고 있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돌담길 걷는 올레꾼들 대지에 초여름 기운이 완연하다. 산과 들에는 녹음이 짙어가고 일렁이는 바람에서는 한여름 못지 않은 열기가 느껴진다. 23일 제주시 조천읍 해안도로를 찾은 올레꾼들이 뒤탔밭에도 아랑곳 없이 돌담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다.

“명상과 치유의 공간…”

사려니숲길로 초대합니다”

‘사려니숲 에코힐링 체험행사’ 내일 개막식
내달 2일까지… 전문가 탐방·공연 등 다채
사려니오름·성판악코스와 물찾오름도 개방

한라산자락의 숲길을 걸으며 산림문화를 체험하고, 지친 삶을 재충전할 수 있는 ‘사려니숲 에코힐링 체험’ 행사가 25일 개막한다.

▷관련기사 7면

올해로 열한번째를 맞는 행사는 서귀포시 표선면 남조로 붉은오름 입구 특설무대에서 개막해 내달 2일까지 9일간 계속된다. 제주자치도가 주최하고 산림문화체험 사려니숲길 위원회(위원장 강만생)가 주관한다.

개막일 오전 10시 개막에 앞서 9시 45분부터 식전행사로 가수 신형원과 제라진소년소녀합창단 공연 등 숲속 음악회가 탐방객을 맞는다. 특별무대 주변에서 달마대사도 퍼포먼스, 건강검진, 임산물 소개, 리본소원달기 등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사려니숲길 탐방은 4개 코스에서 진행된다. 남조로 붉은오름 입구에서는 사려니오름·비자림로·성판악·물

찾오름 코스가, 비자림로 사려니숲길 입구에서 출발할 경우 사려니오름·물찾오름·남조로·성판악 코스를 걸을 수 있다. 사려니오름 코스와 성판악코스는 행사기간에만 개방하는 코스다. 자연휴식년제를 실시중인 물찾오름도 행사기간에 한시 개방되는데, 오전 9시~오후 1시 오름 입구 도착 탐방객에 한해 20명 단위로 입장 가능하다.

또 행사가 열리는 동안 주말마다 네 차례의 ‘전문가와 함께 하는 숲길 탐방’과 무대공연이 준비되고 있다.

산림문화체험 숲길위원회에서는 행사기간 숲길 탐방객이 몰리며 남조로변 주차난이 예상되는만큼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하고 있다. 또 숲길 탐방객을 위해 비자림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로 입구~남조로 붉은오름 입구~한남리 출구를 순환하는 셔틀버스가 행사기간 무료 운행된다.

강만생 산림문화체험 사려니숲길 위원장은 “도민과 관광객들의 사랑을 꾸준히 받고 있는 열한번째 사려니숲 에코힐링 체험행사장을 찾아 개막식과 음악회를 함께 즐기고, 숲길을 걸으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산림문화체험의 진수를 맛보길 바란다”고 초대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말 방목 후 한라산 생태계 다양성 회복

제주도, 3차년 제주조릿대 관리방안 연구 결과
말방목·벌채 후 출현식물 37종→59종으로 증가

한라산에 말을 방목하고 조릿대를 벌채한 결과 출현식물이 2016년 방목 전 37종에서 2018년 59종으로 증가해 생태계 다양성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나용해)는 24일 오전 10시부터 한라산목원 생태학습관 시청각실에서 4차년도 ‘한라산 제주조릿대 관리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제주조릿대 관리방안 연구는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에 걸쳐 진행되는 연구사업이다. 3차년도까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주조릿대는 국립공원

내 95.3%(146㎢)에 분포하고, 해발 400m 이상에는 78.5%(347㎢)의 면적에 분포하고 있다.

특히 연구사업 기간 매년 말방목 및 벌채를 진행함에 따라 출현식물 종수가 2016년 방목 전 37종에서 2017년 46종, 2018년 59종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조릿대 피압으로 생육이 불량했던 관목들이 우량 관목으로 생육이 회복돼 벌채 및 말방목이 제주조릿대 관리에 긍정적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계유산본부는 5월 중순에 4차년도 학술조사 용역(용역기관 동북아

생물다양성연구소)을 착수해 12월 초까지 7개월간 진행할 계획이다. 3차년에 걸쳐 제주조릿대 분포 면적을 산출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에 도면화됨에 따라 방위별·해발고도별 생물량(Biomass)과 탄소함량을 조사해 제주조릿대의 현존량과 탄소저장 가치, 산업화 이용 시 경제적 가치 등을 산출할 예정이다.

제주조릿대 관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말방목 연구는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소 말 6마리를 지원받아 만세동산 일대(해발 1600m)에서 1ha를 대상으로 45일간 말방목 실험을 진행한다. 벌채연구는 2018년과 같이 한라산 관목군락지인 장구목(1.8ha), 선작지왓(0.5ha), 만세동산(0.5ha), 진달래밭(0.1ha)을 대상으로 전면베기와 뜰베기 대한 연구가 이뤄진다.

표성준기자 sipyo@ihalla.com

제주도가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상/생/성/장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만 35세~55세 근로자를 위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은?
기업, 근로자, 제주도가 함께 적립하여, 근로자가 근속 및 계약유지 시 [2,040만원+이자]를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내용

근로자	근로자 적립금 총 600만원	5년간 매월 10만원 적립
중소기업	기업 부담금 총 720만원	5년간 매월 12만원 적립
제주도	도 지원금 총 720만원	5년간 매월 12만원 적립

5년 적립 시
사업참여 근로자에게
2,040만원 + 이자 지급

▶ 접수기간 2019년 5월 14일 ~ 6월 7일 (마감)

세제혜택 기업은 기업납입금 전액 경비인정과 25% 세액공제, 근로자는 만기공제금 수령시 기업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50% 감면

지원대상 제주도 내 중소기업, 참여근로자 6개월 이상 재직한 정규직 ①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 만 35세~55세 이하 ② 청년재직자 : 만 34세 이하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064-754-5163 / 5159

만 34세 이하 근로자를 위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장려금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기업,근로자,정부가 함께 적립하여, 근로자가 근속 및 계약유지 시 [3천만원+이자]를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기 업 : 1,200만원 적립 (월 20만원 x 60개월)
- 근로자 : 720만원 적립 (월 12만원 x 60개월)
- 정 부 : 1,080만원 적립

▶ 제주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기업 장려금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제주도내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제주도가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기 업 : 가입축하금 60만원 (공제 3개월 유지시)
유지축하금 90만원 (공제 30개월 유지시), 만기축하금 150만원
- 근로자 : 만기축하금 120만원

▶ 접수기간 상시접수

기업도 근로자도 GROW UP!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KOSME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rea SMEs & Startups Agency